

인공지능 3대 강국·기후위기 대응 밀그림 그린다

NEWS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60일간 국정 로드맵 수립

정부서울청사서 첫 전체회의...정부조직개편 최우선 논의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 일간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부조직개편 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과제인 ‘인공 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후 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은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개편 등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앞서 기획재정부나 검찰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기에 이들 부처에 대한 과감한 개편이 예상된다.

기재부의 경우 최근 당내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

소해야 한다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TF 외에도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TF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TF는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조세 개편안과 관련해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 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판

심이 쏠린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하는 국정기획위는 18일~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검토,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모두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 33명보다 인원이 1.5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도 “농작물 재해보험 드세요”

30일까지 집중 가뭄 기간 운영

전남도는 올 여름철 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와 경영 안정을 위한 2025년 여름철 농작물 재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집중 가입 기간 여름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주요 품목(11종)을 대상으로 가입률(목표율 80%)을 높이기 위해 시군, 농협과 함께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가입 품목은 옥수수, 벼, 가루쌀, 대파, 인삼, 고랭지 배추·무, 참다래, 콩, 팥, 녹두다.

올해부터 벼(여광), 콩, 옥수수 품목은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농업 수입 안정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군, 농협 담당자 회의를 통해 기관별 역할을 나누고, 품목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교육을 할 계획이다.

시군과 읍면동에서는 마을 홍보방송, 가입 안내 문자 발송, 이장회의 등 각종 행사 시 재해보험 가입 중점 홍보 등에 나서고, 지역농협에서는 지난해 가입자 중 올해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원예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도청 서재필실에서 도정 주요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도, 미래발전 핵심현안 국정과제 반영 전력질주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발맞춰 도지사 중심 체계적 건의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를 단장으로 지난 4일 발족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가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발맞춰 지역 핵심현안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의 핵심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전남 미래발전 건의과제’ 100건,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전남공약 이행 주요과제’ 77건을 중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 등 건의활동에 전력 질주할 방침이

다.

주요 건의과제는 △통합대학교 국립 의과대학 설립 △솔라시도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등 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메가프로젝트 △AI 첨단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광 공항 육성 등이다.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국가 발전을 이끄는 핵심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앞으로 서울에 있는 중앙협력본부를 거점으로 도지사는 물론 부지사·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수시로 상주하며 국정기획위원회, 국회·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해 전남 현안과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전남 주요사업이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전남발전을 견인할 절호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전남도의 핵심 현안과제가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돼 전남은 물론 국가발전까지도 이끌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귀농어·귀촌인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인구 늘리기 시책 일환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금까지 604가구에 대해 혜택을 줬고, 약1억6200만원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했다.

대상은 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으로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귀농어 귀촌인

가다. 검사 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전 항목이다.

서비스를 바라는 귀농어 귀촌인 가구는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나 담당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 담당자가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수한 후 연구원에 검사·의뢰하는 방식이며, 검사 결과는 시군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하어로 슈퍼책과 함께놀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운천1길 35

T. 1600-7953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15일까지 7만4000건 접수”

추천 사유가 주요 판단 요소...데이터베이스 등록해 활용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합류할 장·차관 후보자 발굴을 위해 도입한 ‘국민 추천’이 새정부의 인재 등용 통로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 4000여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직접 추천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수가 마감되면 추천 받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인 내각 인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천된 인제는 이번엔 임용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셀프 추천’이나 조직적인 동원 사례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 “자천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며 “사유를 꼼꼼히 살펴 추천이 많다고 무조건 임용되는 것도 아니고, 인사 검증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합리성을

마련하고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천 사유를 검증한다는 것이 지, 원하는 추천 사유가 따로 있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검증을 책임질 민정수석 자리가 공식인 것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인선은) 지금 좀 더 진행 중”이라며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에서 이 부분은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른바 ‘어공’(별정직 공무원)들의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계엄 이후로 근무하지 않지던 급여를 가져가고, 현재 정부에서 도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면 절차적으로 당연히 면직이 맞다”며 “그런 절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